

경주 석굴암 원주 대성 스님 수행공간서 좌정한 채 열반



면 어느 틈엔가 밖에 내놓아 버릴 정도였습니다.

석굴암 공양주 아무 염화 보살(63)은 "평소에는 석굴암 부처님 그릇과 같은 인자한 미소를 지닌 스님이었지만 사중 살림에 대해선 호랑이 같았다"고 회고한다.

스님은 열반에 들기 바로 얼마 전까지도 90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새벽예불은 물론, 사시예불, 저녁예불까지 참석했다.

경주 석굴암(주지 종상)에서 30여 년 동안 원주수임을 맡았던 한 노스님의 좌탈(坐脫)이 교계에 잔잔한 감동을 던지고 있다.

대성(大聖)스님은 7월 26일, 세수 92세로 자그마한 수행공간에서 좌정한 채 열반에 들었다.(사진) 스님은 72년부터 석굴암에 주석하면서 열반에 드는 날까지 노구를 이끌고 원주수임을

더구나 새벽예불에 들기 전에는 추운 겨울날에도 항상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제일 먼저 법당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좌정했다.

그러나 사중 어느 누구도 스님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스님은 30여년을 석굴암에서 주석했지만 원주수임에 관련된 일 외에는 찾아오는 불자들을 만나거나 외출을 하지도 않고 오직 스님의 방사에서 좌정하며

장좌불와·간경정진... 육신안락 멀리

92세 노구불구 예불전 찬물로 목욕재계

놓지 않은 채 수행정진했다.

석굴암 기획실장 성제스님은 "후학 스님들의 수행정진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섬세히 보살폈다"며 "스님은 그렇게 이곳에 오셨다가 그냥 그렇게 떠나가셨다"고 말했다.

특히 대성스님은 평소 자리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 수행정진을 통해 짧은 스님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고 한다. 일평생 대중들에게 일체의 법문을 하지 않았다는 스님이 오직 자신의 수행을 통해 후학스님들에게 무언의 법문을 전해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 더구나 노구를 이끌고 장좌불와를 하면서 일체의 편안함도 멀리했다고 한다.

"좀 편히 앉아서 수행하시라고 두툼한 방석이라도 가져다 놓으

경전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오죽하면 스님의 법명이 실제로 창호(昌湖)였으며 속명이 김대성이었다는 것을 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석굴암 김대용 사무국장은 "석굴암의 창건주가 같은 이름의 김대성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스님은 아마도 석굴암과 큰 인연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님의 영결식은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 주지 종상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선원 강원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8일 석굴암 법당에서 엄수하면서 도 조용히 치루졌다. 스님의 49세는 8월 1일 초재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열리며, 9월 12일 막제가 봉행된다. (054)746-9933

경주= 박원구 기자

조선 도공 천도 추모제



현봉 순천 송광사 주지는 9일 사자루에서 조선 도공(陶工)을 위한 천도 추모제를 봉행한다. (061)755-0107

엄마랑 빵만들기 행사



상덕 육수복지관장은 6일과 13일 어머니와 어린이가 함께 빵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엄마랑 빵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진흥원 8월 다보법회



서든각 대한불교진흥원은 6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중 법당에서 이불춘 교수(동국대)를 초청 8월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우리는 선우 여름캠프



박광서 우리는 선우 이사장은 8-11일 강화도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실시한다. (02)2278-8672

저작권심의조정위원장



윤청하 전 문화관광부 총무실장은 7월 29일 열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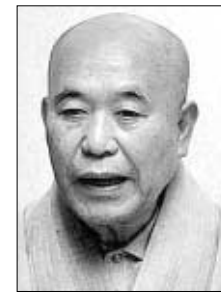
사찰환경감사 실시



김태재 경기불교문화원장은 9-10일 회원사와 함께 보성대원을 순회하며 사찰환경감사를 실시한다.

양국 불교교류 징검다리 역할

한몽불교교류협의회 총재 지성 스님



"한국과 몽골 간의 불교교류가 지역 불교계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어려움도 많고,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과 몽골의 원활한 불교교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월 30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열린 한몽 불교교류협의회 발기인 대회에서 총재로 추대된 지성스님(대구 동화사 주지·사진)은 "불교교류협의회가 한국과 몽골의 불교문화교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성스님은 "과거와는 달리 종교 간 문화간의 갈등문제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한몽 불교교류위원회가 한국불교계의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님은 또 "우리보다 앞서 몽골에 진출해 각종 교육사업, 의료봉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천주교나 기독교에 비해 불교계의 해외진출은 아직 결실의 수준"이라며 "우선 대구유니버시티아시아대회에 참여하는 몽골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한몽불교교류 사업의 첫 단추를 채워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몽불교교류협의회 창립총회는 13일 오후 4시 팔공산 동화사에서 몽골 대사장 간담사 주지 차이참즈(CHO JAMTS)스님 및 지역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불교이념 복지·청소년 교화에 접목

불국토 설립 9돌 대표이사 정관 스님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과 참여를 고민하면서 불국토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의 그 고민에 충실하면서 불교이념을 복지

와 청소년교화에 접목시키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설립 9주년을 맞은 불국토 대표이사 정관 스님(영주암 회주·사진)은 불국토 설립 초창기의 첫 마음을 강조했다. 불국토는 94년 설립 이후,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청소년법인 '불국토'로 성장하면서 부산 복지와

청소년 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해 정관스님은 "보살사상과 지비심을 바탕으로 정진해 온 법인 직원들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불자들 덕분"이라고 불국토 성장의 공덕을 대중들에게 회향했다.

불국토의 향후 주력사업은 노인복지사업으로 2004년에는 부산 불교계 최초로 양로원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딜 계획이다.

"불국토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곧 포교의 장으로 활용된다"고 전제한 정관스님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불국토의 서원이 곧 부처님법의 실천임을 잊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판매수의 노숙자 구호단체 지원

불교소품제작 동판공예가 이용생 씨



"불자들에게 동판공예를 무료로 지도하고, 동판 오방불의 판매 수익금을 노숙자 돕기 기금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불교관련 소품을 동판으로 제작해 온 동판공예가 이용생(60·사진) 씨가 최근 '국태민안 오방불' (세로 240cm, 가로 130cm)을 처음으로 제작,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노숙자구호단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몇 달 전 준비위원회 교육원 회원들이 부

인역 광장에서 노숙자들에게 빵과 우유, 계란 등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지요.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때부터 노숙자 돕기에 뜻을 세운 이 씨는 이왕이면 불교소품을 만들어 보시의 참 뜻을 널리 전하되 했다. 커다란 동판에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노사나불, 약사여래불 등 다섯 방위의 부처님을 모신 '국태민안 오방불'은 독특한 미감을 자랑하는 동판 조형물이다.

꿈바위불교교육원 부산포교당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판공예 무료강좌'도 열 계획인 이 씨는, 반응이 좋을 경우 서울에서도 무료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051)552-1672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전국염불만일회 제6차 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공동대표 김재일)는 7월 27-29일 영천 은혜사주지 법당에서 제6차 성지대회를 개최했다. 법타스님, 김재일 대표, 이진호 연합포교사단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성지대회는 호마천도사의, 촛불점 등의식, 육연불(六念佛) 등으로 진행했다.

동대부고 인천시장배 축구 우승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교장 한성규) 축구부는 7월 27일 열린 제3회 인천광역시시장배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축구부는 참선 등 불교 수행법을 통해 인내심과 극기력을 길러왔다. 한편 축구부제 11회 백목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3 불교평화포럼

한반도 위기,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귀의삼보하옵고,

한반도 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포럼은 한반도 위기 극복과 지혜로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003 불교평화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불교단체 관계자들을 모시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에 맞는 평화활동의 방향을 정립해보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에 부디 바쁘시더라도 참가하시어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8월 9일 15:30 입재식
- 16:00 불교평화포럼 1부 "한반도 위기를 진단한다"
 - [기조발제] 한반도의 운명-북미관계의 실상에서 / 박명림 박사
 -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관계 / 서승 박사
 - 한반도 위기와 안보(경제비움 측면에서) / 박형중 박사
 - [시정토론] 조성렬 박사, 남문희 기자, 홍익표 박사
- 18:00 저녁 공양
- 19:30 불교평화포럼 2부 "지혜로운 대응은 무엇인가?"
 - [기조발제] 불교사상적 접근 심재홍 박사
 - 시민사회의 대응 손혜재 박사
 - 통일운동의 힘로 장용철(통일운동가)
 - [열린토론] 참가자 전원

주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포럼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일시: 불기 2547(2003)년 8월 9일(토) 오후 3시 ~ 8월 10일(일) 오전 12시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보림사 설립전
문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처 ☎ 02-725-4277, FAX 02-744-4287

행사 당일(8월 9일) 주최측이 마련한 버스가 조계사 앞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권(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음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순환계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기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정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대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굵어질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이며 약안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향비와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향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활짝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애당되는 증상(0)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통이나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땀을 많이 흘린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인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딱딱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머리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감성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 2 개기 이상 애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